

※ 공개 설정 ※

" 야, 먹을거 있냐? "

[외관]



-무기-



[이름]

리(螭)

[나이]

32세

[성별]

남

[성격]

::장난을 좋아하는::

“떡 열개 주면 안잡아 먹지~ 엉? 한개 아니냐고? 난 한 개론 만족못해!”

하루라도 얌전히 있는 날이 없다.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면 빠르게 주변을 살피서 장난칠 사람이 없는지 스캔한다. 장난들은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칠법한 유치한 장난이나 먹을 것을 내놓으라는 장난들 뿐이다.

::건들건들한::

“에엑... 일하기 싫어..놀고 싶어..에에에....”

기본적으로 일하는것, 특히 서류 작업을 하기 싫어한다. 그냥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하지 못한다. 10분이 지나면 금세 자리에서 녹은것 마냥 축 쳐져 있다. 이러다 보니 일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벼락치기 마냥 한번에 몰아서 하는게 버릇이 되었다.

::엄살이 심한::

“악!! 나 피나!! 피!! 봐!! 종이에 손가락 베였어!!”

작은 것 하나에도 무척 엄살이 심하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자신에 한해서만 심한 엄살이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 끝을 살짝 베이면 침 바르면 낫는다면서 설렁설렁 넘겨버린다. 이런 성격 때문에 자주 화를 불러내서 맞기도 한다.

[기타]

생일 9월 18일

요리를 잘하지만 막상 하는 것은 귀찮아 한다. 특기는 먹튀라고..

기본적으로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히 떡을 좋아한다. 떡 중에서도 꿀떡이라면 사족을 못쓴다.

높은 곳을 좋아해서 자주 지붕위로 올라가 낮잠을 자거나 한다. 일하기 싫어서 도망치면 보통 높은 곳에 숨어있는다.

자신이 가르치는 무술 수업 시간에는 제법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 그리고 꽤나 엄격해진다. 기본적으로 무술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김과 동시에 타인에게 상처를 낼 수도 있어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소지품]

옥으로 만든 방울